



#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법사들이 천축으로 간 까닭은?

# 佛典 구하고 불적순례하려고 '죽음 불사'

## 1. 불전 입수와 불적 순례

인도에서 비롯된 불교는 동서로 뻗어나갔다. 이웃 나라들은 셀 수 없는 전법승과 상인들에 의해 불법을 접할 수 있었다. 동시에 셀 수 없는 구법승들에 의해 불법의 감수수를 마실 수 있었다. 인도 서역의 전법승과 달리 동아시아의 구법승들은 불전 입수와 불적 순례가 구도의 목표였다. 그들은 오직 진리에 대한 갈증에서 출발했다. 더러는 자기의 좁은 나라를 벗어나기 위해 구법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나라를 벗어나는 순간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다. 고래로부터 인도를 향해 길을 떠난 고승들은 약 860여명으로 집계된다. 이들 중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대략 165명이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들은 695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들 동아시아 구법승들의 대열에는 한국인들도 있었다. 이들 860여명의 구법승들에는 10세기에 계암(繼業)의 동행자 300명과 행군(行動)의 동행자 156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들이 인도로 간 길은 어떤 루트일까? 일찍이 청말 민족초의 중국 계몽철학자인 양계초(梁啓超)는 구법인이 이용하여 인도로 간 루트를 시기와 지역별로 나누어 여섯 갈래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1) 해로인 ① 광주(廣州) 출항 루트, ② 안남(安南) 출항 루트, ③ 청도(靑島) 출항 루트, 2) 서역 갈반타로(渴槃陀路)인 A) 소록(疏勒), 카슈카르) 경유, B) 자합(子合, 카라사르) 경유, C) 사차(沙車, 아르칸드) 경유, 3) 서역 우전 - 계빈로(關賓路), 4) 서역 천산북로(天山北路), 5) 티베트-네팔로(路), 6) 전면로(滇緬路) 등이다. 그런데 인도에 대한 관심과 인도의 범본 불전을 입수하기 위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5세기에는 117인, 7세기에 124인이 이 길을 떠났던 반면 6세기에 20인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양계초는 당시 인도 불교사상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고, 돌궐의 득세로 인도로 가는 육상 교통로가 그전만큼 안전하지 않았으며, 중국 불교계가 나름의 이해와 성장에 눈을 돌렸다고 해명하였다.

반면 7세기에는 다시 구법인이 124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은 인도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났음을 시사해 준다. 의정(義淨)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691)인도로 건너간 한국인 승려들에 대해서는 9명의 일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에 실린 55명의 구법 고승 속에는 9명의 한국인이 수록되어 있다.

일연은 이 저술을 인용하여 "아리아발마(阿離耶跋摩)와 그를 계승하여 해업(惠業), 현대(玄奘), 구본(求本), 현각(玄恪), 혜륜(惠輪), 현유(玄遊)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명의 법사가 모두 자신을 잇고 불법을 좇아 천축에 가서 부처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적었다. 이어 "아리아발마는 신라 사람인데 처음에는 불교(正教)를 구하려 일찍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성인의 자취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용기가 생겼다. 정관 연간(627-649)에 장안을 떠나 오천축에 이르러 나란타사(那蘭陀寺)에 있으면서 율론(律論)을 많이 열람하고 불경을 커다란 나뭇잎에 베껴 썼다.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기약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절에서 무상한 70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고 하였다.

또 일연은 "하지만 어떤 이는 중도에서 일찍 죽어



펠리오가 발견한 <왕오천축국전> 원본(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당시 구법승들의 목숨을 건 순례의 결과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다.

## 6·7세기 인도 구법행 계속 이어져

### 한국 출신 구법인 12명

### 백제 겸익, 고구려 현유 외 모두 신라인

### 본국 귀국 경우 드물어, 중도 입적 많아

나 그 절에 머물렀지만, 끝내 신라(新羅)나 당나라로 돌아온 이가 없었고, 현대(玄奘)만이 당나라에 돌아왔으나 또한 죽은 곳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축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구타에설라(矩矩此譬說羅)라고 부르니, 구구타는 닭(鷄)이란 말이고, 예설라는 준귀함(賁)을 말하는 것이다. 그 나라 사람들이 전하여 말하기를 '신라는 닭의 신(鷄神)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깃털을 머리에 꽂아 장식한다'고 하였다.

『삼국유사』의해편의 '귀족제사' 조는 신라가 해초 당시 계림(鷄林)으로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천축에는 '계귀' 혹은 '구구타에설라'로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동왕 벽화에서 보이는 조우관을 쓴 신하처럼 고구려 이래 우리 선조들이 머리에 새의 깃털을 꽂아 장식한 관(鳥羽冠)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도 한다.

## 2. 한국 출신 구법인

이름을 알 수 있는 백제와 신라 및 고구려 출신의 인도 및 서역의 구법인은 모두 12인이다. 백제의 겸익(謙益)과 고구려의 현유(玄遊)를 제외하면 나머지 10인은 모두 신라인이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구법인은 아리아발마, 해업, 현대, 구본, 현각, 혜륜, 실명 등 2인 이외에 혜초(慧超), 무루(無漏), 원표(元表), 오진(悟眞) 등이다. 백제의 겸익은 『미륵불광사사적』(彌勒佛光寺事蹟)에 따르면 성왕 4년(526) 바닷길로 인도로 가서 중인도의 상나라대올사에서 수

학하고 인도 승려 배달다(倍達多) 삼장과 함께 아비담장(阿毘曇藏)과 오부 율문(律文)을 가지고 백제로 돌아와 번역하였다. 고구려의 현유는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의하면 스승인 중국인 승철(僧哲)과 함께 스리랑카에 가서 그곳에 머무르다가 입적하였다. 각훈의 『해동고승전』에는 동인도로 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마도 그곳에서 스승과 헤어져 스리랑카로 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의 아리아발마는 정관 연간에 장안을 출발한 뒤 총령을 넘어 인도에 건너갔다. 나란타사에 머물며 율론을 열람하고 불경을 사경한 뒤 그곳에 머물러 입적하였다. 현각은 현조(玄照)와 함께 인도에 가서 보드가야를 방문한 뒤 인도에서 병사했다고 한다. 해업은 당 정관 연간(627-649)에 인도로 건너가 날란다에 머물며 진제가 번역한 『십대승론』을 필사했으며 그곳에서 입적하였다. 의정은 날란다에서 그의 필사본 『십대승론』을 발견하였다. 현대는 영취연간(650-655)에 티베트와 네팔을 거쳐 인도에 들렀으며 귀환 도중 도욕운(土浴運)까지 갔다가 다시 보드가야로 돌아와 중국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각훈의 『해동고승전』에는 그가 상카시아에 있는 삼도보계(三道寶階)를 보았다고 쓰고 있지만 그 전거를 알 수는 없다.

혜륜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 의하면 신라에서 인도 순례를 위하여 중국으로 왔다가 당 인덕 연간(麟德, 664-665)에 현조와 함께 인도에 갔다고 한다. 그는 바이살리의 토하라 승사(僧寺)에서 의정을 만났지만 그 이후 자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구본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의 서두에만 나오는 신라승이다.

원표는 『송고승전』에 의하면 신라(사실은 고구려 유민)출신이지만 당나라 천보 연간(742-756)에 중국에 갔다가 서역(西域)으로 가서 성적(聖跡)에 참배하고 중국에 돌아와 복건성(福建省)의 지제산(支提山) 서쪽에 머물렀다고 한다. 『보림사사적』(1457-1464년 편찬)에 그가 장흥의 보림사를 세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흥의 천관사를 세운 것으로

## 혜초 남인도 밀교승 금강지에 불교 배워

### 광저우서 바닷길로 인도 동해안 도착

### 파미르 고원 넘어 장안 돌아와

### 혜초는 불공삼장의 두번째 제자

짐작된다. 이후 중국에 머물다가 다시 신라로 돌아와 보림사와 천관사 등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무루는 『송고승전』에 의하면 신라 성덕왕의 왕자 출신으로 팔탑(八塔)에 경배하기 위해 인도에 가다 총령의 하란(賀蘭)에 머물다가 입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라승 2인은 의정의 『대당구법고승전』에 의하면 7세기 후반에 바닷길로 인도로 가다가 파로사(婆羅師)에서 입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진은 『대당청룡사삼조공법대덕행장』(大唐靑龍寺三朝供奉大德修行狀)에 의하면 당 정원 5년(789)에 중국을 떠나 중인도에 가서 『대비로사나경』을 구해 돌아오다가 티베트에서 입적하였다. 신라 출신의 대표적인 구법승인 혜초(慧超) 또는 혜취, 704년-787년)는 어린 시절부터 좁은 신라를 떠나 세계인으로 살려고 유학을 시도하였다.

## 3. 혜초의 인도·둔황 순례

혜초는 신라 성덕왕 18년(719)에 신라를 떠나 당나라로 건너가 남인도(南印度)의 밀교승(密敎僧) 금강지(金剛智)에게 불도를 배웠다. 성덕왕 22(723)년에 당나라 광저우[廣州]에 가서 인도의 승려 금강지(金剛智)의 제자가 된 뒤, 그의 권유로 바닷길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근교의 나신국(裸身國)을 경유하여 인도 동해안에 도착하였다. 이어 인도의 사대 영탑(靈塔) 등의 여러 성적(聖跡)을 순례하고, 오천축국(五天竺國) 등 40여 개국을 거쳐 파미르고원을 넘었

다. 727년경(성덕왕 26)에 당나라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가 있는 쿠차(龜茲)를 거쳐 당나라 장안(長安)으로 돌아왔다.

그는 중국의 광저우(廣州)에서 시작해 수마트라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파미르 고원 부근과 카슈카르(喀什, 당시의 疏勒國)와 쿠차(庫車, 龜茲國)를 마지막으로 하는 8년간의 여행을 기록한 『왕오천축국전』 3권을 남겼다.

740년(효성왕 5)부터 당나라 장안(長安) 천복사(薦福寺)의 도량(道場)에서 금강지와 함께 『대승유가금강성해만주실리천비천발대교양경』(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實利千臂千鉢大教王經)이라는 밀교(密敎) 경전의 한역에 착수하였으나 이듬해 금강지가 입적하자 중단되었다. 불공의 입적 뒤 동학들과 함께 황제에게 글을 올려, 스승의 장례 때 보여준 은혜에 감사하며 아울러 스승이 세웠던 사찰을 존속시켜 달라고 청원했다.

773년경 대흥선사(大興善寺)에서 금강지의 제자 불공(不空)으로부터 이 경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787년까지 중국의 오대산(五臺山, 3058미터)의 금강지 대공삼장(大空三藏)의 역장(譯場)에서 54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불경을 번역하였다. 그는 불공삼장(不空三藏) 6대 제자의 한 사람으로 당나라에서도 이름을 떨쳤으며 불공은 유사에서 자신의 법을 이은 6대 제자 가운데 2번째로 혜초를 꼽았다.

그가 쓴 인도 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은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았다. 1906-1909년 사이에 프랑스의 학자 폴 펠리오(Pelliot)가 중국 간쑤성 지방을 탐사하다가 둔황 석굴에서 구해낸 앞뒤가 떨어진 책 2권을 발견하였다. 현재 이 기행문은 8세기 동서교류사 연구에 있어 너무나 귀중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밀교승 혜초는 단지 불공(不空, Amoghavajra, 705~774) 삼장의 제자라는 것만 알려졌었다. 그의 여행기가 발견된 지 7년 뒤인 1915년에 일본 학자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는 당대 밀교 최성기의 중요 문헌인 원조(圓照)의 『대중조승사공대판광지삼장화상표제집』(代宗朝僧司大藏正廣智三藏和尚表制集) 속에 수록되어 있는 사료에 근거하여 밀교승 혜초가 신라인으로서 유년기에 당나라에 들어가 중국 밀종(密宗)의 시조인 금강지(金剛智, Vajrabodhi, 671~741) 삼장을 사사하고 불경의 한역에 지대한 공헌을 한 신라인이었음을 고증해 내었다. 그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슬람 문명권을 다녀온 사람이자 기행가라는 점에서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일연은 천축으로 떠난 여러 법사들을 기리며 "천축땅은 멀고 멀어 만점산이 가려 있지만/ 가련하게 유학사들 힘써서 오르네/ 몇 번이나 저 달 따라 외로운 배 보냈건만/ 구름 따라 석장 쫓고 오는 이 못 보았네"라며 안개개워 하고 있다.

##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선역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무림대 권수(정수일), 『신라·서역교역사』(단대출판부, 1992). 이주형,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사화평론, 2009)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붓다북

불교전문서점 쇼핑몰

www.buddhabook.co.kr

정준출가

불교서적

불교용품

명상음반

붓다북

## Click!! 인터넷 검색창에 붓다북!

불교전문서점 쇼핑몰